조달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11.2.(월)

# 조달청,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기간' 운영

-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통해 접수
- 직접이행의무 위반 및 브로커 개입 행위 근절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조달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의 목적은 사업자등록만 등록하고 낙찰된 후 브로커 등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고 일부 수수료만 챙기는 공급능력이 없는 업체들을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다.

조달청과 계약 체결하고 직접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계약상대자와, 낙찰 후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 참여 유도하거나 특정 제조·공급사와의 계약을 교사하는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불공정행위 등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는 조달청(홈페이지-국민참여-조달기업 불공정행위신고센터) 및 나라장터(홈페이지-조달기업 등 불공정행위신고센터) 누리집 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계약상대자가 직접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고, 계약이행 완료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계약 건의 브로커는 입찰참가 등록이 말소 처리된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불공정행위를 한 계약상대자와 브로커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 담당 부서 | 구매사업국<br>구매협력과 | 책임자 | 과 장 | 신 봉 재 | (042-724-7302) |
|---|---|---|---|---|---|
| | | 담당자 | 사무관 | 염 동 현 | (042-724-764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